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0>

깨달은 즉시 부처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이 보림(保任)할 물건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미래가 다하도록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야."

본 것이다. 조주 스님은 물론이고 나머지는 다 부처의 행을 하는 자들이다. 이미 되어져 있는데 또 무엇이 되려고 닦는단 말인가? 깨달은 자들은 닦을 것이 없다. 이것이 돈오(頓悟)이고 정통 선불교의 사상이다. 깨달은 즉시 부처이다. 부처는 부처의 길을 간다. 닦는 자들이 아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조용한 곳으로 가는 자는 쌀 창고가 된다."

問 學人欲學 又謗於和尚 如何得不謗去 師云 你名什麼 學云 道皎 師云 靜處去者米囤子

問 如何是學人保任底物 師云 盡未來際揀不出

학승이 물었다. "저는 신참자로서 선문(禪門)의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조주 스님이 물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학승이 대답했다. "혜남(惠南)이라고 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훌륭한 모름이구나."

問 學人纔到 總不知門戶頭事如何 師云 上座名什麼 學云 惠南 師云 大好不知

보림은 보호임지(保護任持)를 말한다. '보호하고 맡긴다'는 뜻이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보(保)이고, 자성(自性)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막는 것이 립(任)이다. 원래 깨달음 후에 부처의 행을 익히는 시간을 보림이라고 한다.

질문자는 보림할 물건에 대해서 물었다. 자성(本自性)의 정체를 묻는 것이다. 자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지금 즉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길 바란다. 마음을 들여다보라. 거기에 무엇이 보이는가? 보이는 사람은 망상을 본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정상이다. 마음은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마음을 본 사람은 없다. 조주 스님도, 임제스님도, 육조 스님도, 부처님도 보지 못했다. 모두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으나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뿐이다. 이 깨달음이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고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자성(自性) 오로지 모름으로 일관해야 언어나 의미에 끌려가면 진실 보지 못해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대수행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찰의 유나 화상이 그런 사람이야."

선문(禪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모르는 것이다. 세상사 모든 언어나 의미는 진실이 아니다. 언어나 뜻을 소통하기 위한 '약속'에 불과하다. 언어나 의미에 끌려가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이 문안에 들어와서는 문자를 잊어야 한다. 임자문내 불립문자(人此門內 不立文字)이다. 오로지 모름으로 일관해야 한다. 다만 이름만 알면 된다. 그러면 훌륭한 모름이다. 때가 되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손바닥 안의 일처럼 훤히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곧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화상의 큰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어."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 결국 화상의 큰 뜻이 아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겁이 지나도 갈아지지 않아."

問 如何是大修行底人 師云 寺裡維是

학승이 물었다. "제가 배우려고 하면 화상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까. 비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물었다.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학승이 말했다. "도교(道皎)라고 합니다."

問 如何是和尚大意 師云 無大無小 學云 莫便是和尚大意麼 師云 若有毫毫萬劫不如

'유나'는 절에서 질서와 계율을 잘 지키도록 당부하는 소임 명(名)이다. 일종의 규율 부장과 같다. 남에게 질서와 계율을 잘 지키도록 당부하려면 타의 모범이 돼야 하므로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율사 스님들이 유나 직책을 맡는다. 학승이 무엇이 대수행자인가 묻은 것에 대해 조주 스님은 주저 없이 사원의 유나라고 말했다. 왜 유나라고 말했을까? 방장도 있고, 국사도 있고, 선원장도 있고, 임승, 잘중도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나를 지목한 것인가. 조주 스님은 수행한다는 그 자체만 볼 때는 유나만한 사람도 없다고

크다, 작다, 부하다, 가난하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마음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진실과 같아지지 않는다. 부처와 같아지지 않는다. 선사는 대의도 없고 소의도 없는 것이 정상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희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㉔
굉지어록(宏智語錄)

목조선 수행방식 체계화

<굉지어록> 9권은 중국 조동종 제10세 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의 어록으로 대정신수대장경 및 속장경에 전한다. 그 기본적인 관본으로 첫째는 송판(宋版) <굉지어록(宏智語錄)> 6책(1157)으로 굉지정각이 서술한 것이다. 둘째는 원판(元版) <명주천동경덕선사공지각화상어록(明州天童景德禪寺宏智覺和尚語錄)> 4책(1346)으로 굉지정각이 서술하고 묘협(妙妙) 및 정계(淨啓)가 중편(重編)한 것이다. 셋째는 일본 강호관(江戶版) <천동굉지선사공록(天童宏智禪師廣錄)> 9권9책(1708)으로 굉지정각이 서술하고 일본의 천계전존(天桂傳尊)이 편집해 개판한 것이다. 기타 이들로부터 개판된 것까지 포함해 8종이 있었고, 이 가운데 7종이 현존한다.

대정신수대장경본의 경우 제1권은 굉지의 서 및 상당어록, 제2권은 송고(頌古) 100칙, 제3권은 염고(拈古) 99칙, 제4권은 상당어록, 제5권은 소참법문, 제6권은 법어, 제7권은 진찬(眞贊) 및 하화(下火), 제8권은 계승 및 잠명(箴銘) 기타, 제9권은 자서(自序)와 진찬과 행엄기와 간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원대 초기에 제2권 및 제3권의 송고와 염고는 만송행수의 수시(垂示)·착어(著語)·평창(評唱)이 가해져 각각 <중용록(從容錄)>과 <청익록(請益錄)>으로 출현했다.

'목조명'이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목조명'에 나타나 있는 목조는 목과 조로 나뉜다. 여기에서 목조가 일어하게 될 때가 바로 목조선의 현성이다. 이것은 본증의 현성 내지는 자각의 의미이다. 때문에 목조선의 구조는 본증자각(本證自覺)을 설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심이 바로 깨침의 세계 곧 불의 세계에 맞추어진다. 본증의 자각이기 때문에 그 깨침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방법과 수행이 구분되지 않는다. 묵묵하게 좌선을 할 때에 그대로 깨침의 세계가 현현한다. 그 세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부터 도달해 있는 세계이다. 이와 같이 목조는 목으로서의 좌선의 수(修)와 조(照)로서 현성된 증(證)을 달리 보지 않고 증이 본래부터 구족돼 있음을 설하고 있다.

특히 목조라는 용어는 단순히 묵묵히 비추어본다는 수식 내지 한정적 관계가 아니라 목과 조의 병립적인 의미이다. 곧 목조는 다양한 어구로 나타나면서도 본래의 목조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조는 목묵한 좌선으로서의 수행을 가리키는 목과 광검에 두루 비추지 않음이 없는 깨침에서의 공능인조를 상징한다. 그리하여 목조가 각각 목은 조가 상징된 목으로서의 작용의 현성이라면 조는 목을 수반하는 조(照)로서의 무작위의 현성이다. 또한 목과 조는 다름 아닌 신(身)과 심(心)이다. 목이 몸에서 율율하게 좌선일여한 상태로 지속되는 동중정이라면 조는 마음에서 무한한 묘용을 뽑아내는 정중동이다. 이것은 몸이 목(?)한 상태로 좌선과 함께 마음이 조(照)한 상태로서의 좌선이다.



굉지정각어록(宏智正覺語錄)

굉지정각은 목조선이라는 수행방식을 체계화시킨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북송에서 남송시대로 이어지는 무렵에 당시 선종계는 당대의 생생한 선기를 점차 상실하고 종파화된 입장에서 이전시대의 답습으로 타성과 돼가고 있었다. 이러한 선종계에 굉지는 새롭게 선수행방식을 제창해 당시의 간화선과 더불어 선종을 크게 진작시켜 나아갔다.

이 가운데 목조선의 사상적 기반은 우선 달마의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에서 말하는 심신(深信), 우두중에서의 좌선관 곧 절관(絶觀)에 기초한 본래자연 내지 본래본연, 그리고 무심(無心)에 기초한 무물(無物)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소위 능가종의 수행에서 수일심(守一心) 내지는 수본진심(守本真心)도 본심의 구비라는 입장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굉지는 천동산을 중심으로 그 자신의 독특한 교화를 펼쳤는데 그것이 목조의 수행이라는 가풍으로 전개돼 나아갔다. 목조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의 선풍을 고취시킨 것은 바로 굉지정각이었다. 굉지가 목조라는 말에서 드러내려고 한 것은 목(默)에 있어서의 무분별과 조(照)에 있어서의 지(知)의 자각이었다. 이와 같은 목조선의 속성과 공능과 비유에 대해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11월 11일 매주(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안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만으로 속 시원히 알 수 있음.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선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권오스님"이나 "선봉사"를 클릭하세요.

선봉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